

새로운 노트

2025.05.21 수 오후 7:56 · 37분 16초

이태수

참석자 1 00:05

프로젝트 기획서가 저희가 일단 선행 유저분들의 일을 대단원 식으로 일단 작성
성을 했는데 기획서가 이렇게 좀 내용이 길어도 이게 일반적인 건지라는

참석자 2 00:22

기획서는 따로 이때까지 썼던 포맷 같은 것들 제공해 준 건 없었죠.

참석자 1 00:29

타이어 2층에는 선행 기술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자 2 00:32

전에 했던 것들은 어디 있어?

참석자 1 00:34

잘하신 분

참석자 1 01:06

지금 제가 네네. 인호 님이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참석자 1 02:30

맨눈이 보이시나요?

참석자 2 02:34

네 잘 보입니다.

참석자 1 02:36

네네. 이게 선행 기술 분들의 자유 대한 예시라고 학원 측에서 나온

참석자 2 02:43

이 포맷을 따로 준

참석자 1 02:50

건 아니죠 아 네네 아닙니다.

참석자 2 02:55

내리면 내리면 뭐가 있어?

참석자 1 02:57

그 RNR

참석자 2 03:01

안녕히 계세요. 우리 거 한번 봐봐요. 다시

참석자 2 03:09

일단 주제가

참석자 2 03:15

주제가 일단 좀 바꾸면 좋겠고 아까 사내 검색 시스템으로 아니 아니 아니에요.

다시 컨트롤 제트 해 봐요. 멀티에이전트 기반 LM 챗봇을 활용한 그다음에 뭐
신입 사원 사내 문서 검색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내 문서 검색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내 본사만 아니고 사내 비정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 검색 및 업
무 업무해가지고 개발 또는 분석 가로 달고 지원 업무 뭐라고 하지 업무 효율
학자 개발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이런 내가 그랬어 이긴 하 내가 그런 식으로 애
기한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좀 읽어볼게요.

참석자 2 04:26

이것도 약간 바꿔야겠네요. 이건 개발자로만 돼 있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타 문서 검색이라든지 코드라든지 분석이
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문제 정의를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참석자 2 04:52

여기서 뭐 스토리를 적어도 되는 거고 이쪽에 약간 스토리를 적으면 좋을 것 같
은데 아까 그 전기 수 적은 한번 보여줘 봐요.

네

참석자 2 05:09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스토리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 어디언스를 그때 강사님도 정확하게 정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때도 초보자는 이래요.

실무자는 이래요. 이런 것보다 23세 누구 마케팅 매니저 누구는 이런 이런 업무
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정의를 그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시니어 개발자든 아니면 아무튼 이 시스템을 누

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건지를 가장 생각을 하면서 그 타깃 오디언스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정의를 우리 지금 여러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문서 검색도 해주고 코드 분석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위반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06:22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건 언제까지예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석자 1 06:30

내일 완료돼야 되는

참석자 2 06:32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참석자 2 06:41

내려봐요. 좀 다시 다시 다시 위로

참석자 2 06:52

이건 또 잘했네. 왜 위에 거랑 달라 다 따로 적었어요.

참석자 1 06:58

이게 제안 솔루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상한 시스템 흐름도였고 이거는 저희가 강사님이랑 멘토링 받기 전 그러니까 타겟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거여 가지고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참석자 2 07:16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일단 쳤고 저 팀 거 다시 저거 봐봐요.

참석자 2 07:3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측 의지는 코드 분석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참석자 1 07:40

네

참석자 1 07:50

내려 내려도 될까요?

참석자 2 07:52

네네

참석자 2 07:58

뭐야 이것도 잘했네. 잠깐만. 근데 이거랑 아까 그거랑 좀 중복이 되겠다.

참석자 1 08:07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피드백 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참석자 2 08:12

잠깐만요. 다시 이전 거 줘봐요. 아니 이거 말고

참석자 1 08:16

정기수

참석자 2 08:22

잠깐만요. 문제 정의 및 제안 솔루션이니까 낫겠다.

문제 정의

참석자 1 08:35

그러면 문제 정의를 저희가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다시 작성을 하고 그 부분을 제안 솔루션을 합치면 될까요?

참석자 2 08:43

합쳐도 되고 바로 그 밑에 컬럼에 그냥 작게 이렇게 적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잠깐만 조금만 내려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아까 내가 시스템 흐름이랑 지금 착각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봐요.

시스템 흐름이랑 중복이 되겠다. 문제 문제의 문제 정의 시스템 정의 예.

다시 전 기술과 한번 보여줘 볼래요?

참석자 1 09:11

네네

참석자 2 09:13

여기 시스템 흐름이 없지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어쩐지 이게 컬럼이 뭔가 안 맞거든요.

제한 솔루션은 좋아요. 제안 솔루션은 좋고 문제 정의 제한 솔루션 하나 더 있었죠 아까 뭐 있었지?

네네네네 네네 시스템 흐름 문제 이 세 개가 뭔가 지금 짬뽕이 돼 있는 것 같거

든요.

네네네. 네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컬럼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시스템 흐름은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시스템 흐름은 그냥 말씀해주신 그 워크 플로우가 시스템 흐름일 것 같고 문제 정의 하나 적고 그다음에 제안 솔루션 하나 켜고 시스템 흐름은 좀 이상하고 트 에이전트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하나 보여준다든지 에이전트 플로우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내려봐요.

이거 왜 다 짬뽕을 해놨어요? 내려 봐 봐요. 이걸 또 뭐야?

참석자 1 10:29

기존 서비스랑 비교

참석자 2 10:34

아니 아까 기존 서비스 못 찾았는데 이걸 또 어디서 찾은 거예요?

기존 서비스 잠깐만 잠깐 이렇게 하려면 이걸 하려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는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성은 예를 들면 코드 분석 같은 건 안 된다.

아니면 예측 모델은 안 된다 아니면 사내 문서가 해주는데 이런 부분 검색은 안 된다.

PDF 포맷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경쟁 우위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솔루션이랑 비교라고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적으면 좋아요.

참석자 2 11:20

근데 요구 사항 정의서에 이것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나

참석자 1 11:25

이거는 그 프로젝트 기획서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서예요.

그러면은 멘토님은 혹시 서비스와 비교는 살짝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참석자 2 11:46

개요 있으면 좋고 정의 있으면 문제 정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제안 솔루션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좋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거 이거는 좀 이거는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참석자 1 12:06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12:10

아니면 진짜 짧게 뭐 적으면 좋은데 지금 하는 방식은 좀 다시 한 번 한 번만 읽어 볼게요.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까요?

참석자 2 12:26

잠깐만 내려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그냥 날리세요.

이거 지금 퍼도 뭐랑 비교를 하고 우위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장 조사하면서 정확한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면 저걸 적고요.

안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저거 빼세요. 그냥

참석자 1 12:53

만약에 프로덕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게 적는 거 추천하시는 건가요?

참석자 2 12:58

너무 그럴 필요 없고 딱 경쟁 우위 부분만 딱 그냥 몇 부분 딱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덕트는 이런 게 그거였는데 우리 거는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참석자 2 13:21

기획서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획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참석자 1 13:25

네네. 그리고 여기는 날리거나 짧게 적고 그다음에 모델링 방안

참석자 2 13:48

충전기

참석자 2 13:59

정밀한 응답과 시각화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정보적 맥락과 도메인 특성에 맞게 분기를 해서 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응답을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다음에

참석자 2 14:52

저 3개가 지금 분석 전략

참석자 2 15:08

뭔가 이상한데 이를 위해부터 머신러닝 기반 예측을 합니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카테고리화되지 않고 분석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한다.
뭔가 이것도 이상한데 일단 저 저 줄은 일단 선만 그어놔 봐요.

참석자 1 15:28

분석 전략

참석자 2 15:30

이를 위해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분석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세 가지 분석 전략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선

참석자 2 15:58

지금 이것도 약간 우리가 그 흐름 플로우 아키텍처 짜기 전인 것 같은데

참석자 1 16:0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석자 2 16:06

이것도 그걸로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여러 개 생겼잖아요.

안에 네 그런 공기들에 대한 기술적 모델링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분기들을 서로 호출하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그 에이전트 안에서 톨들을 호출하고 그 톨들이 대답을 프로포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제되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폴백이 있으면 어떤 신뢰도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답변을 내뱉고 안 뱉으면 뭐 인터랙션 루프를 도는 그런 전체적인 에이전트 두 에이전트의 협업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적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참석자 2 17:16

그 안에서 방금 벡터 유사도나 아니면 시각화를 하기 위한 텍스트 퀘스트 SQL

이라든지 아니면 PDF에 있는 레그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기술들이 활용된다 해서 그 안에 이런 소 소제목으로 이런 기술들을 적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는 큰 에이전트에 여러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액트 구조로 리즈닝하고 액팅하는 그 구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네 그거를 먼저 어필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어떤 툴들이 있는지 그 툴 안에 기술들은 뭔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참석자 2 18:07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네네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신 버전으로 좀 이것도 고쳐보세요.

참석자 1 18:21

네네 이제 여기서 질문을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전 기술 분들 한번 다시 보여드린 다음에 여기 RNR이 그 롤 앤 그 책임과 역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2 18:41

실제로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참석자 1 18:45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강사님한테 멘토링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선행 기술 분들이 이 RNR 작성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사님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으로 역할을 정하라 그러셔서 위에 거는 강사님이 피드백을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 적어봤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선행 기술님께서 작성해 주신 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현협에서 RNR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그리고 또 역할 분배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

서

참석자 2 19:27

이거는 뭐 회사마다 엄청 달라요. 그냥 그런가요?

진짜 AI 분야는 유진 님이 하시고요. 데이터 분야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완전 크게 나눠버리는 데도 있고요.

네 네 아니면 지금 강사님이 적어주신 방향으로 예를 들면 역할은 AI 엔지니어다.

그다음에 주요 책임은 프로포트 엔지니어링 레그 구현 랭 그래프 툴 데피니션 평션 콜 같은 거 설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적고 백엔드 엔지니어다 그러면 API 서버 구현 MCP 등 에이전트 연결한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 UI나 이런 거 만든다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누려면 저거보다 더 섬세하게 역할이랑 주요 책임을 나누는 게 좋아요.

참석자 2 20:13

그래서 AI 엔지니어 누구 주요 책임은 레그 흐름 그다음에 AI 엔지니어 누구 주요 책임은 에이전트 개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 플로우 개발 그다음에 누구는 프론트 엔지니어 기획 PM PM 플러스 AI 엔지니어 해서 유지 케이스 정의 사용자 흐름 설계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뭐 구현에도 참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구는 ML옵스 배포 담당 해가지고 LLM API 키 관리 보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놔두려면 그렇게 상세하게 놔두던가 강사님이 원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인 거

참석자 1 20:53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참석자 2 20:55

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강사님 이 말하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참석자 2 21:10

그래서 역할이랑 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 기술로 나누면 돼요.

아까 강사님이 적은 거 한번 다시 보여줘 볼래요 그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딱 그 에이전트를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췌네.

참석자 1 21:41

네네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거예요. 강사님 말을 듣고 네 네네

참석자 2 21:49

그런 식으로도 나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지금 3개니까 그걸로 잘라가지고 역할은 AI 엔지니어고 책임은 에이전트 1 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구현 랭 체인 랭 그래프 활용해서 에이전트 흐름 생성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나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22:25

네 그 프로젝트 기획서는 피드백은 여기까지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게 요구사항 정의서인데 혹시 이거는 보기 불편하실까요?

참석자 2 22:41

아니 아니요. 지금 좋습니다. 세세하게 잘 적으셨네.

이거는 이것도 오늘 그 흐름 만든 거 좀 반영을 해 주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23:06

코드 버전 변환만 할 거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바 투 파이썬 코볼 2 파이썬 코볼 2 자바 이런 거 원하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거 언급해도 되고 한두 개 하나 하나 정도는

참석자 2 23:26

두 번째 사내 문석 QA에는 전처리 쪽은 안 하나

참석자 1 23:32

전 처리는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전처리를 하고 레그 확인을 해서

참석자 2 23:54

전처리는 그러면 여기에 따로 없어요.

참석자 1 23:57

저희가 HTML 들이 구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참석자 2 24:04

넣을 거죠. 그 PDF도 있었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PDF 파스나 그러니까 오픈소스 PDF OCR 기능이나 아니면 HTML 크롤링 했던 크롤링도 했으니까 크롤링은 손으로 했어요.

하나씩 그러면 그거는 일단 빼두세요. 그냥 아무튼 모아놔던 그런 문서들을 이제 벡터 디비에 넣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

청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넣기에 알맞은 포맷으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메타 데이터를 분리를 해 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24:45

방금 어떤 거 얘기해 주셨죠?

참석자 2 24:53

핑킹 메타 데이터 분리 그다음에 벡터 DB에 넣기 위한 포맷으로 변환 이런 것
들

참석자 1 25:12

내려 드릴까요?

참석자 2 25:15

네 사용자 지문 분석 실력과 생선 요약 보고서 여기는 또 시각화랑 업무 요약
생성을 해봤네.

텍스트 SQL 빠졌네 네

참석자 2 26:02

지금 이걸 나중에 적을 거예요. 일단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텍스트 SQL하고 시각화하고 저 위에 시각화는 또 아래로 가야 되
고 위에 거는 그냥 예측하고 리포팅을 하는 거죠.

참석자 2 26:24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이거를 전처리를 따로 빼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데

참석자 1 26:32

데이터 저장 쪽에 다 빼놓을까요?

참석자 2 26:35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저장이라고 해놔으면 전처리 및 데이터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 그거는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 좋은 포맷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좀 왜냐하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버리면 다 데이터 전처리를 적어줘야 돼요.

에이전트 원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하나 빼가지고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참석자 2 27:18

에이전트 선택 다시 위로 한번 올려볼래요. 이 흐름 플로우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있나요?

참석자 1 27:28

흐름 플로우는 여기 보시면은 그 입력 카테고리를 비즈니스 유형으로 자동으로 LLL 하나씩 분류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 2 27:38

이건 입력 절인 거고 그게 그 하나의 라우터인 거고 그냥 사용자 입력 처리 입력 처리 입력 처리보다는 전체 에이전트 플로우 아키텍처 구현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사용자 입력 처리는 하나의 기능인 거고 아

참석자 2 28:19

그러면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최신성 반영하고 하면 될 것

같은 필터 검색하고

참석자 2 28:33

검색 검색 검색 성능 개선 이런 것도 있어 있어야 되나 검색 성능 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치 또는 리랭킹 이런 거 일단 해놓고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정해 놓으면 하이브리드 서치나 뭐 리랭킹 같은 거

참석자 2 29:16

여기에 로깅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크게는 별 그게 없어요. 좋은 것 같아요.

중간 보고 자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고 중간 보고

참석자 1 29:34

아니 아니요.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참석자 2 29:36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예 완전체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그런 내용들을 PPT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저랑 중간 보고 리포트 리뷰할 때 바로 딱 보고 할 수 있게

참석자 1 29:54

혹시 선행 기술자 분들의 중간 발표 PT 자료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참석자 2 30:03

네 보여주셔도 돼요.

참석자 1 30:05

다른 팀 거 이게 그 선행 기수분의 중간 발표 자료인데

참석자 2 30:14

네

참석자 2 30:24

내가 공유를 하면 안 될 건데 잠깐만요. 내가 보고 괜찮았던 거 하나 공유해 줄
게요.

서로

참석자 1 30:32

감사합니다.

참석자 2 30:33

이거 이거 안 보여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참석자 1 30:41

저희는 까먹겠습니다.

참석자 2 30:42

저 일단 저 실수로 공유 좀 할게요. 잠깐만요.

참석자 2 31:09

몇 기약지 잠시만요.

참석자 2 31:54

어 이거다 잠깐만요.

참석자 1 31:57

이거 그거 하려고 클로바노트 이어폰을 끼면 애가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참석자 2 32:16

아까 화면 보이세요 지금 꺼놔어. 네네네. 여기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개요 진행 현황 예상 결과 목표 이슈 사항 이렇게 했어요.

개요는 이렇게 국내외 시장 규모와 전망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 이 업계는 이 매출이 이렇게 이런 돈이 돈다. 하지만 이 주제 선정 이유는 불친절한 이런 추천 시스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로 성장하는 웹툰 웹소설 시장은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더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주제 선정 이유를 하는 거죠. 사용자의 개별적 추천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쟁 우위점을 잡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천을 네이버 웹툰에 가지 않고 디시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를 가면서 이런 추천 좀 해두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없다.

참석자 2 33:19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LLL 활용을 위한 p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맞춤형 추천 재미있는 모델 추천형 모아보기가 있다.

우리는 이런 기술 스텝을 쓸 거고 협업은 이런 걸로 한다.

진행 현황은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일정표는 이렇고 일정표는 이렇

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RNR이 돼 있고 데이터 수집은 이런 식으로 크롤링을 했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쓸 거기 때문에 수집을 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돼서 관리가 된다.

그리고 수집했던 데이터는 지금 전처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더 주요 성과 벡터 스토어를 했던 거는 모델 선택할 때조차도 어떤 벡터 스토어가 제일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를 해서 모델을 골랐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이슈는 이렇게 해결했다.

참석자 2 34:16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런 식으로 했고 다음 모델도 임베딩 모델은 이렇게 썼고 아까 말했듯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검색 속도나 유사도 점수를 보면 이런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이런 쿼리를 날렸을 때 이런 결과를 준다. 그래서 사용자 유도 분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컴퓨터 엔지 이렇게 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의도가 들어가면 추천으로 갈 건지 일상 대화로 갈 건지 이런 에이저틱하게 들어가서 추천으로 가면 1번 2번 3번으로 갈 건지 일상 대화로 가면 1번 2번으로 간다.

그래서 모델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추천을 만화 캐릭터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르소나를 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다양한 툴들을 사용했다.

참석자 2 35:03

이런 식으로 DB 검색 툴을 할 건지 아니면 리코먼트 툴을 할 건지 그래서 실제로 이 아키텍처들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시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결과는 화면 설계서는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로판을 선택하면 로판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애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챗봇 형식으로 그래서 애랑 이런 좀 재미있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연애 시뮬레이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설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는 지금 이런 게 있다. 후에는 이런 걸 작업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제가 이 사람들을 최종에 100점 줬어요.

왜냐하면 중간 발표 때는 98점 줬는데 100점에 최종 때 더 잘해 왔더라고요.

참석자 2 35:52

제가 말한 건 다 해봤다고 아무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시장 조사부터 이런 페인 포인트 페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그리고 모델 셀렉션도 그냥 셀렉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니까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이런 이유들도 다 들고 온 거죠.

하나하나조차 이유를 다 만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없게

참석자 1 36:21

시장 조사를 해서 선행 서비스와 본인들의 서비스의 우위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어떤 모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 같은 거는 다 준비를 해서 뭔가 체계적이네.

참석자 2 36:36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참석자 2 36:43

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토요일 날에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1 36:51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36:53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1 36:54

사진 사진

참석자 2 36:57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자 1 36:58

그 멘토님 혹시 사진 찍으셨나요? 예. 방금 찍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알리

참석자 3 37:03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clovanote.naver.com